

국학자 이병기 선생을 엿보다

가람 이병기 전집 중 가람일기 부분 3권 간행... 총 30권 출간 중 종합·주해된 것 처음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출판문화원이 5년에 걸쳐 기획·출판하고 있는 '가람 이병기 전집'(간행위원장 김익두 교수) 총 기획 분량 30권 중 6~8권('가람 일기' 부분) 3권이 간행돼 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나온 '가람일기' 부분은 '가람일기' 총 5권 중의 3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가람 이병기 전집'은 전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 기념 기획 출판사업으로 1915년부터 기획해 총 30권 분량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출판문화원(원장 황갑연 교수)의 기획 사업이다.

이번에 출간된 '가람일기' 부분은 특히 일기 원문 1~3권 부분이 순한문 행초서로 쓰여져, 이를 탈초·입력·주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었다. 한문일기 부분의 탈초와 번역·주해는 유화수(호원대 교수, 전집 간행위원)와 황재문(서울대 규장각 교수)가 맡아 작업했다.

그동안 이 '가람일기'는 그 일부만 선별해서 출간된 적이 있으나, 그 전체가 종합·주해 형태로 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총 30권으로 기획 진행되고 있는 가람 이병기 전집은 현재 이번 나온 3권의 '가람일기'를 포함해서 8권이 출간됐으며, 이미 출간된 부분들은 가람의 창작문학 작품들 모음에 해당되는 분야이다.

앞으로, 간행될 부분은 시조론·문학사·국문학개론·고전 교주 및 주해·번역 및 주해 선집·역사·서지학·어휘작업·교과서 등 20여 권 분량의 내용들이다.

이 방대한 분량의 '가람 이병기 전집'은 육당 최남선·춘원 이광수·만해 한용운 등 대표적인 국학자들에 비해서도 단연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분량의 개인 전집이다.

간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익두 교수(인문대 국어국문학과)는 "위대한 방대한 분량의 전집이다 보니, 그동안 자료의 수집 정리와 주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행초서 한문일기 부분의 탈초와 주해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그간 전북대 총장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익산시장 등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해당 기관들과 협력을 내년 연말까지 전집



을 완간할 계획에 있다. 문해계와 학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25일까지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공모

익산시가 가람 이병기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11회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을 공모한다.

익산시는 시조문학 진흥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시인에게 수여하는 '제11회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부문은 다른 문학상에 선정되지 않고 발표된 시조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10

년 미만 경력의 시조시인(2009. 10. 11 이후 등단)으로 최근 3년간(2016. 10. 11~2019. 10. 10) 우수한 작품(또는 작품집)을 발표한 시조시인이면 응모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 접수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상자에게

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6일 가람문화관에서 가람시조문학제와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가람문화관(063-832-1891) 또는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063-859-52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작 경력 20년 이상 시조시인에게 주어지는 '제30회 가람시조문학상'은 추천제로 진행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 관내 중학생 대상 청소년 자치문화축전 개최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청소년 자치문화축전 '플래임 마한! 고잉 투 더 마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일 오전 11시 마한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익산 이일여자중학교 댄스동아리 '이리오너리'의 댄스공연을 시작으로 래퍼 '키드밀리'의 합창 공연, 붐어빵과 어묵 시식부스 등 다양한 문화공연 및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 관내 중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소년 자치문화축전은 학생자치문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관내 중학교 학생위원들들로 축전기획단을 구성했고, 여러 번의 협의 및 의논을 거쳐 학생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래퍼 '키드밀리'를 초청했다.

이리남성여중 심아현, 한채연 학생의 사회로 이어져 '이리오너리' 댄스동아리, 이리동중 '스페이스' 댄스팀 등 관내 중학생들의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11시 30분부터 래퍼 '키드밀리'의 신나고 열정 넘치는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래퍼 '키드밀리'는 힙합음악 경연프로

그램 방송 '쇼미 더 머니 777'에서 3위를 차지하고, 독창적인 랩 스타일로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래퍼로 관내 중학생들의 흥을 한껏 발산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내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학생은 마한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lib.je.go.kr/mec)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마한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과(840-7294)로 하면 된다.

마한교육문화회관 이현규 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 중심의 자치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진짜 주인공이 되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러시아 클래식 속으로 '풍덩'

내일 장수 군민회관에서 러시아 울리브셰바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공연

러시아 울리브셰바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이 내일 오후 6시 15분부터 군민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장수중동문화마을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초청공연은 이리나 알라예바 지휘자와 오석진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총 65명의 단원이 '아리랑 환상곡', '초원의 파노라마', '해 높은 보리수 나무', '박물장수', '보이첸코 라리사', '나자로프 키릴', '치스짜코바 리디아', '찌허미로바 마리아' 등 24여곡을 연주한다.

러시아 울리브셰바 민족음악 오케스트라는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소재한 9년 음악학교에서 1982년에 설립, 민속음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유명한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과 유럽의 클래식 음악들을 새롭게 해석해 러시아의 민족 악기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수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



여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포크 음악의 진수 '서정시대 힐링 콘서트'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31일 오후 7시 30분 10월 문화가 있는 날 '서정시대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더해 포크음악의 진수를 들려 줄 곳 중년 프로젝트 그룹 '서정시대'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기 위해 김제에 찾아온다.

가녀린 미성이 매력적인 한국 포크음악의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박화희와 그룹 자전적 탄 풍경의 천재 싱어송라이터 강인봉,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부드러운 보이스의 대명사 유리상자 박승화 등 세 명의 뮤지션이 선사하는 공연으로 8~90년대 향수를 부르는 음악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주목받은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무대와 재치 있는 입담이 함께하는 낭만적인 음악의 향연으로 가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내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www.gjmc.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jmc.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벤처사업 지원 사업 98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0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된 98개 사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올해 공모전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 관광벤처 부문, 재도전 부문(폐업 경험 사업자 재창업) 각 분야에 총 388건이 접수됐다. 이 중 예비관광벤처 70개, 관광벤처 10개, 재도전벤처 18개 기업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관광 자원에 기술을 접목한 서

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별 소비자 특성이나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재 역시 비중이 높았다. 자유 여행자들을 위한 정보 공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여행 정보 제공, 전통키보드 활용 관광 등의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재도전벤처에 선정된 18개 기업에는 관광 상품·서비스 재개발비(최대 4000만원)와 함께 재창업 교육·맞춤형 상담,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정읍시지부 지부장 조철형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칠보농협조합장 권혁빈
 황토현농협조합장 김재기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 태인농협조합장 한상곤
 신태인농협조합장 김성주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 정읍원협조합장 이대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업인, 소비자, 정부의 힘이 더해져
 농가소득 4,207만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농가소득 5천만원시대!
 안전하고 맛있는 농축산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5 / 3,722만원

2017 / 3,824만원

2018년 4,207만원

2017년 대비 농가소득 383만원 / 10% 증가 (2019. 5. 31 현재까지 발표자료 기준)

2005년 3,050만원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축! 전주매일 창간